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든 발전자산 친환경·디지털 전환”

3대 경영방침 ‘안전·상생·혁신’
현장중심 경영 기조 5만km 누벼
보령발전본부, 친환경으로 탈바꿈
에너지 대전환, 새로운 기회 변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보령을 비롯한 모든 발전 자산을 친환경·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보령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은 안전한 일터, 혁신적 성장, 공공적 가치 창출이라는 3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중부발전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사 안전관리단 운영과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로 중대재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갔으며, 직원 참여형 안전 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현장 안전문화도 정착시켰다. 지난 1년간 현장 중심 경영을 기조로 전국 사업소와 협력사를 누비며 이동거리만 5만km를 넘겼다. 발전소 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과 소통한 감성 경영의 성과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보령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에 약 1400억 원을 환원하고, 1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킨 점이 높이 평가된다.

혁신도전 분야에서도 속도를 냈다. 올해 인도네시아 수력 사업 계약, 미국 태양광 착공, 오만 태양광 주주 등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국내에서는 장주기 ESS, 가상발전소(VPP) 사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지난 9월 30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부발전

업 등 신사업 모델을 다각화했다. AI 기반 발전소 고장예측 시스템과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하이코미’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도 마련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총 설비용량 1만 777메가와트(MW)로 국내 전력공급의 8%를 담당하며 발전공기업 중 전력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해외사업에서도 발전공기업 최초로 4년 연속 3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익 구조를 입증했다.

이 사장이 강조한 미래 전략의 상징적 현장은 보령발전본부다. 보령은 198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 성장기, 전력 수요 폭증에 맞춰 건설된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단지다. 값싼 유연탄을 활용해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화를 떠받쳤고, 보령 3호기는 국내 최초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기술 국산

화의 기념비였다. 세계 최장 6500일 무고장 운전 기록은 한국 발전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상징이었다.

하지만 보령은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보령 1·2호기의 조기 폐쇄에 이어 2026년 5호기, 2028년 6호기가 복합발전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석탄 설비도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보령신복합 1호기가 들어서며, 수소 혼소 기반 가스복합 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여기에 육내 저탄장 전환, 국내 최대 10MW급 CCUS 설비 구축 등 친환경 프로젝트가 병행된다.

이 사장은 “보령은 지난 40년간 한국 산업발전의 중추였다”며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향후 2035년까지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구레·봉화 양수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완 전원도 확보한다. 또한 AI·데이터 융합 기술을 발전소 운영에 접목해 스마트 발전소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년 주기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며 “변화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회사별 인사제도, 급여체계, 기업문화가 달라 단기간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해관계자, 지자체,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해외유통 K-푸드 ‘진·가품 판별’ 가동

위조·모방품 판별 사이트 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글로벌 K-푸드 위조·모방품 관련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류 열풍 속 K-푸드 위조·모방 제품 증가에 따른 조치로, 이달 2일 제보 사이트 개설 시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1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중국·베트남·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을 진행해, 한글 문구나 태극기 표시 제품이 K-푸드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달에는 캠페인 대상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 방법은 지난번 캠페인과 동일하다. 해외 매장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특정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제품명을 사용한 모방품 ▲한글 표기 등으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을 제

보하는 방식이다. 2일 개설 예정인 진·가품 판별 누리집에 해당 제품사진, 제품명, 유통매장, 발견일시, 모방 의심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해외 현지 소비자뿐 아니라 여행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증정한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한글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모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제조사 확인, K-푸드 로고 등 정품 구별 요령을 홍보해 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진짜 K-푸드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비자원 “일부 에어매트 유해물질 검출”

내구성·펌프 성능 차이 제품별 뚜렷
일부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에어매트 제품 간 내구성과 펌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캠핑용 에어매트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그린네이처 ‘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 ‘NH C25 에어매트’ ▲노마드 ‘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 ‘NH C25 에어매트’ ▲루커스 ‘벨린스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 ‘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 퀸’ ▲쿠디 ‘PVC 에어매트 25’ 등이다.

성능 부문에서는 노마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펌프 성능에서도 노마드 제품은 공기 주입 시간이 1분 54초로 가장 짧았으며, 로티캠프 역시 2분 이내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크·루커스·스위스알파인클럽·쿠디 등 5개 제품은 공기 주입과 배출이 가능한 일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에어매트와 펌프를 시험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형 펌프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이 높았다.

다만 안전성 조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났다. 스위스알파인클럽과 쿠디 제품의 경우 피부와 직접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kg)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조사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며, 두 회사는 교환·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시사항 적합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7개 제품 가운데 스위스알파인클럽 제품만 관련 기준에 부합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펌프 관련 표시사항에서 제조연월 등 필수 항목이 누락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수산부

추석연휴 항만 안전강화

항만 운영 특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가 추석연휴 기간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 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및 보안 관리가 핵심이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연료 공급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제도 정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지난 27일부터 재해복구 센터를 가동해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김연세 기자

전력망 알박기 물량 4.1GW 회수
“실수요자에 단계적 배분 예정”

기후부, 연휴 포함 3주간 우선 배정
신규 사업 희망자에 잔여물량 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는 하수사업자 문제에 대응해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 물량 4.1GW(기가와트)를 실수로 발전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휴 용량을 신속히 시장에 재공급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하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전력망을 이용하려는 실수로 발전사업자들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지난 7월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MW(메가와트),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전국 단위 하수사업자 회수물량은 재

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집중된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이어 영남권 980MW, 강원권 679MW, 수도권 324MW, 충청권 78MW 순이다.

배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은 이미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어 10월 4주차부터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 그리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잔여 물량을 공개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은 물량은 배전단 접속 대기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전력망 확충 공사보다 더 빠르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계약만 맺어두고 발전에 착수하지 않는 하수사업자가 계통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망 포화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급하다”며 “하수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확보된 여유 물량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딱 1초면 종자 특징 11가지 파악”

농진청, ‘표현체 영상분석’ 고도화
종자 62종에 기술 적용 정확도 97%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자·작물의 형태·색상·생육을 영상으로 수치화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종자 한 개의 11개 특성을 분석하는 데 5분씩 걸리던 것이 단 1초로 단축된다. 4만 개 분석 기준으로 인력은 4명에서 1명, 기간은 40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특히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선별된 종자의 품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낸다.

농진청은 밀, 콩, 옥수수, 고추, 수박

등 상업용 종자 62종에 기술을 적용해 분석 정확도를 97%로 높였는데 이는 미국, 유럽에 뒤처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술은 종자분석에 더해 활용 범위가 넓다. 딸기 당도 선별, 사과 흠집 자동 선별, 팽이버섯 갓 수량 계산, 옥수수 낱알 수 확인, 수확 시기 예측 등 농장·가공 현장에 쓰인다. 또 제빵 공정과 정에서 불량 선별과 고사리 포자 발아 분석 등 식품·산림 분야로 확산 중이다.

농진청의 김남경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농업 고도화에 부응해, 표현체 영상분석이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